

독자투고

시평 ... 최준의 '닭' 연작시를 중심으로

희망보다 절망이 아름다운 세상

현대는 근대에 대하여 강한 회의와 자기불신을 의무로 드러내고 있다. 이성과 논리적 인식의 자장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우리 시대의 현실은 불안과 무관심의 세계를 자신의 내적 논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까지의 안정된 가치관은 어느 순간 해체되었으며, 우리의 삶은 가치의 부재상태에 의한 불안의 고통으로 지배당하고 있다. 낮의 꿈꾸기가 전해주는 유일한 즐거움 속에서 과거의 나는 잊혀져야 한다. 후기산업사회의 본성에 내재하는 자기파괴의 위협속에서 모든 의미가 상실되어 버리고 소비되는 현실과 나 사이의 적당한 거리두기는 무질서한 혼란의 영역으로 이끌어 간다. 절망에로의 전락에 대한 두려움도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이다. 현실에 대하여 내적인 우리는 사회와 역사의 총합한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때의 관계망이란 기하학적 공간의 대칭에 따른 사회성이나 물리적 시간의 연속적인 역사성과의 연관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구조, 즉 시간과 역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와 역사는 전체의 안에서 개체적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전체성 속에 스스로의 모습을 숨기며 무의미한 자기구성의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

끊임없는 의미부여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영위될 수 있는 삶은 허구적인 현실의 세계를 실재하는 존재의 세계로 이끌고 가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비극의 반전은 실재하는 모든 세계를 무화시켜 버리는 계기로 작용한다. 존재에 대한 이제까지의 성찰은 허물어지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찾아내지 않는 한 나의 존재는 그 어디에서도 증명받을 수 없다. 인식의 과정에 의하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현실은, 스스로를 객관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요소들을 추출하고 이에 따른 총체적 표상들을 객관에서 관념으로 일체화시킬 수 있는 표상으로 이끌어 낸다. 최준에게 있어 그 표상은 동물들의 이미지로 외화되어 나타난다. 긴장된 모습으로 시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절감은 죽음과 이타에 대한 투사의 상징으로 닭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원형은 이미 그것 자체에 내재하는 완전성의 구조에 의해 오히려 불안정하게 나타나지만, 우리의 삶을 대신하는 형상으로 서 절망에 대한 적절한 우회

통로를 거쳐 나타나게 된다. 시인의 시 속에 나오는 동물에 대한 은유는 그들의 내면을 흐르는 어두운 힘이 고통스러운 현실과 만나면서부터 생겨나는 여러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절망스러운 고통의 시간들을 위태롭게 지나고 있다. 의심스러운 존재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내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의 작은 흔적)일 따름이다. 현실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눈부신 아침은 언제나 희망보다 절망이 한결아름다와 보이는 날이기 때문이다.

"닭의 고뇌는 자신의 다리에 있다. 닭이 뒤뚱거리며 우스꽝스럽게 뛰어다닐 때 얼마나 깊은 좌절과 회의를 맛볼 것인가 닭의 발만 찾는 미식가인 그대들은 닭의 발이 왜 그토록 맛갈스러운지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닭의 필사의 생애는 날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뜬한, 그래서 (슬픈 두 다리)에 있기 때문인 것을"

현실에 대한 시적 인식의 과정은 객관적 실재의 기반 위에서 시의식의 전개과정에 따라 요구되는 이해의 결과를 자신의 고유한 질서에 의하여 주장되도록 한다. 억압당하지 않는 시적 인식의 과정은 본래부터 현실과의 관계에 대하여 적대적이다. 시인과 현실과의 긴밀하고도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시의식의 흐름이 어느 정도 왜곡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완전한 시적충족의 결여를 통해서만 현실의 내적 기반을 이루는 사회조직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시에 대한 현실의 억압이 정당화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수많은 사회적 금기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 금기들은 질서나 규범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폭력 토대를 재생산하며 자신의 논리를 관철시켜 나간다. 따라서 단적인 삶의 조건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현실이 아무리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해도 시적 충동이 방해당하는 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시인의 직관은 그 본질에서부터 이와 같은 연기에 반항하는 것이기에 현실은, 객관성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정당화 하려고 해도 시의 강제에 의한 변형의 가능성을 하나의 필연성으로 지니고 있다. 최준은 언제나 유예되는 어둠이 비참한 평화의 시간으로 남아있는 현실의 내재적인 갈등구조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담담히 드러내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일상에 대한 관심을 시작한다.

닭의 절망은 깊은 좌절과 회의로 가득 채워진 길을 가고 있는 (슬픈 두 다리)에서 부터 비롯된다. 지나온 길 가고 있는 길 가야 할 길이 온통 뒤엉켜져, 자칫 발을 헛디디면 한 세상이 바뀌는 위태로운 삶은 언제나 절망의 깊이만을 더해줄 뿐이다. 도약과 추위를 꿈꾸며 날아오르지 못하는 닭의 날개는 압박한 죽음의 생애를 늦추지 못한다. 가끔씩 세상을 뛰어 달아나거나 날아 오르려고 기를 쓰며 날개를 퍼덕거리려 보아도 어둠은 언제나 현실의 지배를 늦추지 않는다. 위안받지 못하는 닭의 맛갈스러운 발은 (오래 걸어 부르르트는 굳은 살이 박힌/ 불

고통을 구분하는 일조차 불가능하게 만든다. 서로가 서로의 등을 떠밀어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며 내지르는 얼얼 없는 비명소리는 혼란한 현실을 가득 채우고 있다. 군거의 기쁨안에 고통을 가두는 일, 고통으로부터 완전이탈하는 일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당대의 모든 권위가 부정되고 가치가 부재한 절망적 상황은 오직 죽음으로만 이어져 있다.

저항력이 떨어지며 사지가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할 즈음에야 땅 위로 내려진 닭의 마지막 고통의 시간, 절망을 기다리며 서는 눈에 비친 운명은 죽음이냐 소멸작전의 요요한 긴장으로 채워져

어려운 일인가. 그러나 시인은 혼란과 격의만이 유전되는 거대한 감옥과도 같은 세상을 (우리 이제 그만 부딪히며 살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로 몸 기대지 않는/ 거리의 나무들은 얼마나 아릅다운가/ 이 혼수의 혼란의 무질서/조금만 여유로워지면 될 것일/사랑으로 극복)하는 꿈을 꾸다. 시인과 닭의 서로 다른 대립항들을 이어주는 시적동일시의 방법은 우리 시대의 가난하고 황폐한, 절망스러운 삶을 보다 절실하게 드러낸다.

내살이 느닷없이 짧아지면서 내 지남 생애가 덧없이 우스워

적 자이는 현실과의 모든 대립항들을 허물어 버린다. 잊혀진 희망에의 기억도 현실의 생명력을 되살리지 못한다. 현재만이 무겁게 남아있을 뿐이다. 그의 시는 영원히 현재적이다. (불치의 봄, 다시 고쳐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봄의 인식이다. 이 어두운 세계 앞에서 시인은 불가능한 탈출과 또다른 세상으로의 잠입을 꿈꾸는 일에 대하여 성찰한다. 바로 이 자리에서 고도화된 추상의 방법인 변신이 놓이게 된다. 서구에 있어서의 피타고라스적 사고와 유클리드 사교와 같은 변신의 의미들은 영혼의 회전이냐 유평화과 같은 동양적 주제를 유평한다. 플라톤의 「공화국」에서 (에르노)의 신화는 그들의 현실적 상황에 알맞은 육신과의 운명을 택하는 영혼들을 보여주고 있다. 카프카의 「변신」등의 이야기는 그들의 자아에 대한 전진적 기능을 허락하지 않고 혼전적 지키면서 동물의 육신이 되는 존재의 환상을 경화시키고 있다.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

을 헤집고 들어오는 칼날을 기다린다. 그것은 차마 그리움의 이름으로 불리워진다.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리움의 행렬은 고통의 종말을 기다린다.

나의 가슴을 헤집는 칼날이 있다 날마다 예고없이 찾아오는 이 고통의 실체를 어떤 이름으로 불러주어야 할지 모르겠다

어쩌다가 고통과 고통 사이의 간격이 멀어질 때 그 아픔이 언제 올 것인지 도무지 알지 못할 때 가슴은 폭풍우의보가 내려진 해안 마을처럼 초조하다 차라리 오고야 말 고통이 기다려진다

예리한 칼날이 어서 나의 가슴을 한차례 헤집어 놓고 떠나가기를, 그 칼날의 도래를 기다린다 그리워한다

가슴에 난 무수한 흉터를 들여다 보며 칼을 꿈꾼다 고통 끝의 평화를 생각한다

이 더러운 닭장 밖의 세상을 그리워하며

나날들을 죽음에게로 돌려 보내고 싶다

부활하지 않는 죽음은 나의 완전한 완성이다. 불에 구워지고 물에 잠겨 살아져도 벗어날 수 없는 절사 유지를 위해 이제 끝 도래할 현실을 기다린다. 아무도 그것때문에 고통해라 하고 하지 않는다. 저항은 이미 너무 늦었다. 나날들을 죽음에게로 돌려보내는 삶, 시인의 죽음은 살아있어서 생명성의 한 구면으로서의 통과제의적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는 언제나 죽을 수 있다. 모든 순간에 있어서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의 완성된 실연은 삶이 죽음과 만나는 그 격렬하고도 고요한 긴장의 순간이다. 시인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지향성(Thanatopsis)은 현실의 세계와 쉽게 화해할 수 있는 삶의 정지를 하나의 필연의 과정으로 수용하고 있다. 생명을 가진 죽음. 죽음은 현존의 한 방식이다.

견고한 현실에 대하여 시인은 언제나 현실적으로 반응한다. 절망이 지배하는 굳어버린 세계는 현실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나에 의하여 그 변모의 가능성이 모두 닫혀있다. 이 세계가 왜곡되었다면 그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나도 왜곡되었으리라. 내가 왜곡되었다면 나를 일부로 하는 현실 역시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하여 비극의 책임을 지우기에는 너무나 무력하다. 그러므로 세계는 언제나 견고하며 항상 정당하다. 나는 잘못되었다. 잘못되었건 나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날마다 예고없이 찾아오는 이 고통의 실체 앞에서, 예리한 칼날의 도래를 기다리는 나는 닭장 밖의 세상을 그리워하며 가슴에 난 무

수한 흉터를 멈추어 줄 권의 순간을 꿈꿀 수 있을 뿐이다. (내가 이곳, 여기에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 도무지 모르겠다) 부재하는 자아에 대한 인식은 현실에 대한 완벽한 승용의 방식을 취한다.

나는 역전을 꿈꾸지 않는다 내용면 몇개의 닭털이 묻어 있었다

핏마루에 올라선 닭들을 쫓으며 몸에 묻은 닭털들을 하나씩 떼어 버렸다

그것은 아지랑이로 지상에서 쉽게 피어올랐다

아직 차고 푸른 하늘 언저리 눈시린 세상 너머로 그것들은 희망의 이름으로 눈부시게 날아 올랐다

땅 위에서 존재의 증명을 허락 받지 못하는 나는 닭장 속의 절사체, 때를 떠나 현실에 대한 이타의 세계로 이끌어간다. 존재의 한계는 시적 인식의 한계이다. 시인의 의식은 위대한 존재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초월의 상태를 지향한다. 상상력은 새털구름이 눈부신 하늘로 날아오른다. 그러나 그 비행은 언제나 삶의 언저리를 벗어나지 않는 저공비행이다. 그는 어둠의 영토를 떠나기 위하여 날개의 자유를 다시 되찾고 받고 자 하지만 (날아 오르려고 기승고 날개 퍼덕거리며 때에도/ 어두운 쪽은 언제나 어두운 쪽으로) 내려앉을 따름이다. 어두운 쪽은 밝은 쪽으로 바꾸기 위하여 몇날 며칠 햇살 끝을 쫓아도 어두운 쪽에 쌓여 놓아도 세상의 한 쪽은 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어둠의 완고함은 거세져도 않는다. 우리는 낮의 밝음으로 어둠의 깊이를 잴 수 없다. 다만 몸에 묻은 닭털들을 눈시린 세상너머로 하나씩 날려보낼 수 있을 뿐이다.

지상에서 쉽게 피어오르는 닭털은 죽음의 흔적에 대한 또 다른 은유이다. 죽음을 완성한 자의 삶만이 (희망의 이름으로 눈부시게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다. 시인이 회귀한다. 현실 저편에 있는 평화로운 삶, 그러나 이 땅위에서는 실재하고야 말 삶이 가지는 본래적인 비극의 모습. 그럼에도 시인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의 어쩔 수 없는 아름다움을 시를 통하여 고백한다. 지상에 살고 있는 시인은 거처를 세상을 헤쳐가면서도 삶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일깨우기를 그만두지 않는다. 이제까지 어떻게 지나온 그의 시적 주체도 사실은 파스칼의 회복에 대한 성찰이 아니었을까. 자칫 잘못하면 일어죽는 서리의 세상에 아직도 파스칼을 지키는 그의 가슴 속에 들어가 살고 싶다.

토실토실한 토종닭 한 마리 기르고 싶습니다

토종닭이 낳은 파스칼 달걀 하나 죽지에 묻고 살고 싶습니다

신현철 (문학평론가 국문 4)

모가지가 비틀러 죽어가고 있는 닭의 눈알이 고통으로 뒤집히고 들어 올려진 다리가 디딜 곳을 찾아 버둥거린다.부절없음을 알면서도 압박한 죽음을 유예시켜 보려고 화석처럼 무슨 물증처럼 제가 조류의 일족이었음을 확인시켜 줄뿐이던 날개 두 쪽을 두서 없이 퍼덕거린다

닭...우리삶 대변하는 죽음에 대한 투사의 상징 생명성 지닌 죽음은 비극적 시대의 현존방식

본고는 지난 8월 무크지 제1집 '닭'에 게재된 최준(국문 4)의 연작시 '닭'에 대한 평론이다.

닭, 닭, 개등 동물을 소재로 한 시 창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최준은 90년 '문학사상' 동단위후 동물세상을 통해 현실사회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 문화의 시대,우화의 시대를 상징하는 동물연작시는 현실의 고통속에 살아가는 우리네 삶의 단편이기도 하다 (편집자註)

닭의 발(타)이었던 따름이다. (슬픈 두 다리)에 대한 응시는 그러한 위태로움에서 부터 생겨난다. 메마른 가슴을 쓸면서도 비극적인 현실로부터 떠나지 못하는 부동의 삶, 슬픈 두 다리의 견고함은 죽음의 방식에 의해서만이 구원되어진다.

"모가지가 비틀러 죽어가고 있는 닭의 눈알이 고통으로 뒤집히고 들어 올려진 다리가 디딜 곳을 찾아 버둥거린다 부절없음을 알면서도 압박한 죽음을 유예시켜 보려고 화석처럼 무슨 물증처럼 제가 조류의 일족이었음을 확인시켜 줄 뿐이던 날개 두 쪽을 두서없이 퍼덕거린다."

저마다의 서랍속에 마음을 감추고 남몰래 열어보거나 하는 우리 시대의 표징은 군거의 기쁨과

있다. 그 위태로운 마지막 순간은 세상의 질서를 자신의 내부로 조용하게 받아들인다. 거부하지 않는 삶, 죽음의 보편적인 이미지는 마지막 순간의 긴장으로 시인을 감싸고, 유언처럼 멀리 떠나는 말은 존재의 표현을 격렬하게 이끌어 간다. 그 위로 실리는 삶은 더이상 닭과 시인의 거리두기를 용납하지 않는다. 최준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고통의 실체 안에서 숨겨져 떠나지 않으려 한다. 증명하기 어려운 고통마저도 실재하는 현실의 일부로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안과 바깥에서 줄 뿐이던 날개 두 쪽을 두서없이 퍼덕거린다."

움직일 수 없는 서리의 세상이 지배하는 끔찍한 폭력 앞에서 시

함께 잘사는 사회, 함께 누리는 풍요-효성

기술과신뢰의 효성그룹이 번영의 21세기를 약속드립니다.

무역

산업

화학

전지

중공업

건설

자동차

전자

기계

지금 일하는 자리에서 각자가 좀더 많은 일에 동참하고, 좀더 마음을 모아 힘을 쏟는 일.

이러한 탐과 화합의 정신이 모여 모두가 함께 잘사는 풍요롭고 행복한 21세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효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효성그룹

● 曉星物業 ● 東洋나인 ● 東洋폴리메타 ● 東洋染工 ● 曉星工業 ● 曉星비스트 ● 曉星인포메이션시스템 ● 曉星데이터시스템 ● 曉星B&H ● 曉星드라이비트 ● 韓國인조나일론플라스틱 ● 東光化成 ● 曉星ABB ● 曉星에바라 ● 韓國타이어 ● 韓國電池 ● 大田皮革 ● 東星 ● 大星 ● 曉星金屬 ● 曉星碾穀 ● 東星開苑 ● 曉星ASC